

완도군, '지역 해조류 우수성' 해외 알린다

미항공우주청-에너지계획원 인증 해양바이오 미래 에너지원 활용 "지역 해조류 양식 탄소중립 기여"

국내 최대 해조류 생산지인 완도군이 미항공우주청(NASA)과 미국 에너지부 산하 기관인 에너지 고등계획원(ARPA-E)을 방문해 블루카본(해양생태계가 흡수해 저장한 탄소) 등 해조류의 우수성을 알리고 인증·연구 논의에 나섰다.

지난 2021년 미항공우주청은 완도의 해조류 양식장 인공위성사진을 공개해 따뜻한 기온과 원만한 조수 차로 해조류 양식에 최적의 조건을 갖췄으며 친환경적이라고 언급해 화제가 됐다.

5일 완도군에 따르면 신우철 군수가 지난달 19일 미항공우주청을 찾아 관계자에게 완도의 해조류 양식 기술, 우수성, 해양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 '블루카본'의 가치 등을 영문으로 직접 설명했다.

신 군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해조류가 블루카본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완도 해조류 양식장에 대해 다시 한번 재조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로라 로렌조니 미항공우주청 해양생물·생물지구화학 책임자는 "완도 지역의 해양 생태계 자원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미국항공우주청에 이어 에너지 고등계획원도 찾았다. 에너지 고등계획원에서는 지난 1월 한·미 에너지부 국제 공동 연구 개발사업인 외해 해조류 양식 기술 시스템 구축을 위해 사업 대상지인 완도군을 방문한 바 있다.

외해 해조류 양식 기술 시스템은 외해에 자동화·기계화 시설을 구축해 부침식(부상과 침강 방식)으로 대형 갈조류를 양식하기 위한 사업이다.

해조류를 활용한 바이오 매스 대량 생산 및 블루카본 발굴을 위해 최첨단 공법의 양식 기술이 투입된다.

신 군수는 에블린 앤 왕 에너지 고등계



지난달 19일 신우철 완도군수가 미항공우주청을 찾아 관계자에게 완도의 해조류 양식 기술과 해양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 '블루카본'의 가치 등을 영문으로 직접 설명하고 있다. **완도군 제공**

획원장과 협력 방안, 구체적인 사업 추진 계획 등에 대해 협의했다.

군은 사업이 완료되면 외해 양식을 통해 생산된 해조류를 해양바이오 소재 및 미래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해조류가 블루카

본으로 인정받게 될 경우 지역 해조류 양식이 탄소 중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완도 해조류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해외시장 개척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완도=정대영 기자



보성군, '봄재 티 작은 음악회' 매주 토요일·성탄절 연휴 개최

보성군은 연말을 맞아 7일부터 12월 매주 토요일과 이달 24일, 25일 크리스마스 연휴 오후 1시 30분에 '봄재 티(TEA) 작은 음악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작은 음악회는 창박으로 드넓은 차밭이 펼쳐진 보성을 봄재 그리다향 카페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의 여유와 아름다운 선율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음악회에서는 관객들에게 친숙한 K-pop 버스킹 공연과 '보성소리창극단'의 이야기가 있는 퓨전국악 공연, '다카포아리아'의 클래식 공연, '비바살롱'의 크로스오버 팝 음악 감상 공연 등이 진행된다. 특히 24일인 크리스마스와 25일 크리스마스에는 캐럴과 추억의 팝송을 보성소리의 국악과 비올라, 첼로, 성악의 협연으로 들을 수 있다.

보성군 관계자는 "따뜻한 크리스마스와 연말이 될 수 있도록 음악회를 준비했다. 차와 소리, 예향의 고장을 대표하는 보성의 랜드마크 봄재에서 보성치를 마시며 멋진 공연을 감상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보성=양중수 기자**

한국생활개선고흥군연합회, 사랑의 반찬 나눔 봉사활동

한국생활개선고흥군연합회는 지난 3일 고흥군농업기술센터에서 사랑의 반찬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하며 지역사회를 위한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전했다고 밝혔다.

5일 한국생활개선고흥군연합회에 따르면 이날 봉사활동에는 연합회 임원 25명이 참여해 반찬 4종류, 400개를 정성껏 준비했으며 지역의 홀로 계신 어르신 100가구에 직접 전달했다.

오재임 연합회장은 "정성껏 만든 반찬을 이웃들과 나눌 수 있어 매우 보람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나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심정우 기자**



한국생활개선고흥군연합회 회원들은 지난 3일 고흥군농업기술센터에서 반찬 4종류 400개를 준비해 관내 어르신 100가구에 전달했다. **고흥군 제공**

노인일자리 참여자 모집 화순군, 20일까지 4260명

화순군은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4260명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사업 유형별 모집인원은 노노케어 등 공익활동사업 4010명, 보육시설지원 등 노인 역량활용사업 150명, 공동체형 20명, 자체형 80명 등 총 19개 사업 4260명이다.

노인일자리 신청은 올해 기존 참여자의 경우 활동기간 중 노인일자리 전담 인력을 통해 활동지 현장에서 접수하고, 신규 신청자는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해당 읍면 지정 모집일에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을 지참한 후 읍면사무소 또는 복지회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공익활동사업의 경우 저소득 어르신 소득 보전을 위해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 내년부터는 지역연금 수급자도 소득 기준에 맞으면 신청할 수 있다.

참여자에는 소득수준과 활동 역량, 경력 등 보건복지부가 제공한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선정하고 최종 선발 대상자는 안전·직무교육 등을 받고 내년 2월부터 일하게 된다. **화순=김선종 기자**

광양서 만나는 산티아고 순례길... '올라! 부엔까미노展'

11일까지 문화예술회관 전시

광양시는 6일부터 문화예술회관 1층 전시실에서 '올라! 부엔까미노展'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엘 까미노 데 산티아고(El Camino de Santiago)'로 불리는 산티아고 성지 순례길은 스페인 북서부의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대성당을 목적으로 하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지 순례길로, 매해 수십만명이 걷는 곳이다.

종잡을 수 없는 날씨와 다양한 풍경이 끝을 모르고 이어지는 길 위에서 서로를

마주치는 순례자들은 '당신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한다'는 뜻을 담아 '올라 부엔까미노(Hola Buen Camino)'라는 인사말을 건넨다.

이번에 개최되는 '올라! 부엔까미노展'은 한국사진작가협회 회원 신나라 작가가 산티아고 순례길을 기록한 사진 작품 50여점을 선보이는 기획초대전이다.

스페인어 인사말을 기획초대전의 제목으로 삼은 신 작가는 광양에도 세계인들이 찾는 돌레길이 만들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지난 2022년 47일간의 순례길

800km의 여정을 기록한 사진 작품을 선보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시회 기간은 6일부터 오는 11일까지로,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전시는 무료로 진행된다. 궁금한 사항은 광양시 문화예술과(061-797-2528)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명덕 광양시 문화예술과장은 "이번 전시 작품들은 보는 것만으로도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 듯한 생생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전시를 통해 시민들의 문화 향유의 기회를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안영준 기자**

함평군,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자 모집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

함평군은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11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사업은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을 지원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

금 격차를 완화하고 정규직 일자리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된다.

함평군에 소재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명 이상 300명 미만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입사 1~4년차인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전남에 주소를 둔 정규직 청년 근로자가 근속하고 있는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함평군은 이번 추가 모집을 통해 4명의 청년 근로자를 선발, 지원할 계획이다.

1년차는 연간 100만원, 2년차부터는 분기별로 75만원, 3년차는 100만원, 4년차는 125만원을 지원한다.

세부 신청 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농어촌공동체과에 접수하면 된다. **함평=신재현 기자**

고흥군, 겨울철 농작물 기습 한파 대비 총력

고흥군은 겨울철 재해 상황에 사전 대비하기 위해 농업재해 대책 상황실을 설치·운영하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군은 2025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겨울철 재해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총 3개 반을 구성해 농업재해 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 기상특보 발령 시에는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해 상황 전파 및 피해 상황 파악, 응급 복구 등 단계별 행동요령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최근 3년간 겨울철 재해가 발생한 시설하우스 20개소를 대상으로 비닐하우스 보수 및 자동화 시설 작동 확인, 배수로 정비 및 제설 장비 확보, 보온시설 정비, 내재해형 규격시설 확인 등 특별 점검을 실시해 겨울철 피해 예방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

군은 겨울철 농업시설 및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재해예방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작물별 관리 요령을 농가에 홍보하는 등 현장 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최근 이른 강추위 등 이상기후가 잦아 기습한파·폭설로 재해 발생 위험이 크다"며 "농업시설과 농작물 재해 대책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고흥=심정우 기자**